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특별재난 일개 지역 교사의 교사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융합 연구

김은휘, 하영선*, 박용경
경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A Convergence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eacher Efficacy among School Teachers in COVID-19 Special Disaster Area

Eunl-Hwi Kim, Young-Sun Ha*, Young-Kyung Park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i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특별재난지역에 근무하는 중등학교 교사의 우울, 불안과 스트레스가 교사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자료수집은 2020년 5월 9일부터 16일까지 D시 중등학교 교사 12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직무 만족도($\beta=0.27, p=.002$), 경제 수준($\beta=0.18, p=.022$), 학력($\beta=0.18, p=.022$), 주관적 건강상태($\beta=0.16, p=.047$), 스트레스($\beta=-0.16, p=.044$), 성별($\beta=0.16, p=.042$)이 교사 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으며, 설명력은 35%이었다($F=11.80, p<.001$). 우울($\beta=-0.09, p=.468$)과 불안($\beta=-0.12, p=.320$)은 교사 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교사 효능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스트레스 관리뿐만 아니라 직무 만족도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주제어 : 융합, 우울, 불안, 스트레스, 자기 효능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teacher efficacy of depression, anxiety, stress among school teachers in COVID-19 special disaster area.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9 to 16, 2020 for 123 high school teachers in D city.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influential factor of teacher efficacy was satisfaction with duty ($\beta=0.27, p=.002$), economic level ($\beta=0.18, p=.022$), education ($\beta=0.18, p=.022$), subjective health state ($\beta=0.16, p=.047$), stress ($\beta=-0.16, p=.044$), gender ($\beta=0.16, p=.042$). These factors accounted for 35% in teacher efficacy. It was found that depression ($\beta=-0.09, p=.468$) and anxiety ($\beta=-0.12, p=.320$)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teacher efficacy. When developing a program to improve teacher efficacy, it is required to prepare measures not only to manage stress but also to improve job satisfaction.

Key Words : Convergence, Anxiety, Depression, Stress, Self Efficacy, COVID-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에서 처음 검출된 후

채 3개월도 되지 않아 전 세계로 확산되어 21세기 감염병 사상 전례 없는 확진자와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다 [1]. 우리나라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은 2020년 1월 20일 중국 우한시로부터 입국한 해외 입국자가 처음으로 확진된 것을 시작으로 [2] 7월 29일 0시까지 총

*Corresponding Author : Young-Sun Ha(ysha@kiu.kr)

Received October 20, 2020

Accepted January 20, 2021

Revised November 4, 2020

Published January 28, 2021

확진자 14,251명, 사망자 300명, 치명률 2.11%로 집계되고 있다[3].

장기화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재난은 직장 과 일상생활을 포함하는 사회 전반에 걸친 막대한 변화를 가져왔고[4], 우리나라 15세 이상 전체 인구의 47.5%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불안 혹은 우울 상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5]. 특히 우리나라 공교육 사상 최초로 정부는 전국 초·중·고의 3월 초 신학기 개학을 연기하였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4월 9일부터 단계적 온라인 개학을 시행하였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들의 출석 관리, 교육의 질적 저하 및 학습 효율성 저하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사운영의 혼란, 온라인 접속 장애, 교육기회 불평등, 저작권 침해 등 이제까지 전혀 예상치 못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었고[6], 대다수 교사는 준비되지 않은 온라인 수업에 직면하여 막대한 스트레스, 불안 및 우울을 경험하면서 교사로서 교육 능력에 대한 효능감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된다.

우울은 자존감 상실과 연관되는 부정적 정서 상태이다. 우울할 경우 매사에 흥미가 없고 무언가를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희망이 없다고 낙담하고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게 된다[7]. 우울은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는 변수로[8] 실제로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서 우울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9]. 더 나아가 우울은 자기 효능감과 연관되어, 선행연구에서 우울한 경우 자기 효능감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10].

불안은 두려움과 연관되는 부정적 정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도 초조하거나 과민한 정서 혹은 신체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7]. 선행연구에서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서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9] 스트레스가 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8], 자신의 불안 수준을 평가하여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정서적 이완을 유지하게 하는 자기 효능감과 관련된다[11].

스트레스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당황하거나 좌절감을 느끼는 낮은 역치의 상태로 지속적으로 각성되어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부정적 정서를 의미한다[7]. 스트레스는 교사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로[12], 학생 지도, 업무 환경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교사의 스트레스 유발요인은 교사의 심리적 소진을 초래함[13]으로써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우울, 불안[14]과 함께 교사 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교사 효능감은 학생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교수 능력

에 대해 교사 스스로 인식하는 효능감의 수준으로[15], 주어진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인 Bandura [11]의 자기 효능감에 기초하여 개발된 개념이다. 교사 효능감은 교직 전문성 및 헌신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져 교사 효능감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 교직에 대해 더욱 전문적으로 인식하여 높은 사명감을 가지고 직업에 헌신하며[16],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감과 도전정신을 가지고 낙관적 태도와 효과적인 대인관계를 발휘함으로써[17]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뿐만 아니라[15, 18, 19], 교사의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12].

선행연구결과 우울[10], 불안[11], 스트레스[12] 모두 효능감과 관련이 있는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우울, 불안, 스트레스를 함께 다룬 국내연구가 드물고[9], 우울, 불안, 스트레스 및 교사 효능감의 수준과 그 인과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전무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대유행 시기에는 다양하고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것으로 보이며, 자기 효능감과 같은 긍정적인 심리 역량은 이러한 상황에서 완충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20]. 실제로 교사 효능감은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도 사이에서 완전 매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어[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례 없는 사회적 재난을 경험하는 현시점에서 우울, 불안, 스트레스 및 교사 효능감의 수준을 파악하고 학생의 학습 효율성 및 교사의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교사 효능감의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더욱 효율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경험하는 교사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 및 교사 효능감의 수준을 파악하고 교사 효능감의 영향요인을 조사함으로써 현재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교사 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효과적인 중재 방안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시기에 교사를 대상으로 우울, 불안, 스트레스 및 교사 효능감을 조사하고 변수 간 관계 및 교사 효능감의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시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시기에 교사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 및 교사 효능감의 수준을 파악한다.

둘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시기에 교사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 및 교사 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시기에 교사의 교사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시기에 특별재난 지역에 근무하는 중등학교 교사의 우울, 불안과 스트레스가 교사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수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D 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필요한 표본 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에서 유의수준 $\alpha = .05$, 중간효과 크기 .15, 검정력 .80, 독립변수 12개, 다중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127명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현재 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한 후 온라인 설문에 동의 후 설문에 응답하는 자이며, 제외기준은 스스로 온라인 설문에 응답할 수 없는 자이다. 연구의 대상자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D 광역시에 소재하는 인문계고등학교 1개교, 전문계 고등학교 1개교의 교사 130명으로 편의 모집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에 응답한 123명의 설문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우울

우울은 Lovibond와 Lovibond [7]가 개발한 DASS depression 도구를 한국판으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Cha, Park와 Kim [14]의 한국판 우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매우 그렇다' 3점으로 구성되었다. 우울 점수는 원점수에서 2를 곱하여 계산하여 0점에서 42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ha, Park와 Kim [14]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4였다.

2.3.2 불안

불안은 Lovibond와 Lovibond [7]가 개발한 DASS anxiety 도구를 한국판으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Cha, Park와 Kim [14]의 한국판 불안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매우 그렇다' 3점으로 구성되었다. 불안 점수는 원점수에서 2를 곱하여 계산하여 0점에서 42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Cha, Park와 Kim [14]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8이었다.

2.3.3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Lovibond와 Lovibond [7]가 개발한 DASS stress 도구를 한국판으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Cha, Park와 Kim [14]의 한국판 불안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매우 그렇다' 3점으로 구성되었다. 스트레스 점수는 원점수에서 2를 곱하여 계산하여 0점에서 42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ha, Park와 Kim [14]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7이었다.

2.3.4 교사 효능감

교사 효능감은 Kim [21]의 교사 효능감 척도를 수정 보완한 Jang [17]의 교사 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교사 효능감은 자신감 7문항, 자기조절감 11문항, 도전감 6문항의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 효능감 척도는 총 24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구성되었다. 교사 효능감 척도 점수는 평균점수를 사용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Jang [17]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전체 Cronbach's Alpha = .89이었으며, 하위척도의 경우 자신감 Cronbach's Alpha = .83, 자기조절감 Cronbach's Alpha = .92, 도전감 Cronbach's Alpha = .72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Alpha = .92이었으며, 하위척도의 경우 자신감 Cronbach's Alpha = .88, 자기조절감 Cronbach's Alpha = .82, 도전감 Cronbach's Alpha = .90이었다.

2.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0년 5월 9일부터 5월 16일 까지 수행되었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D광역시 2개 중등학교 교사 1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자가 보고식 설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총 123명의 교사가 참여하였고, 설문 조사의 소요 시간은 약 20분 내외였다. 불성실한 응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응답 자료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SPSS)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 1) 교사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조사하였다.
- 2) 우울, 불안, 스트레스, 교사 효능감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및 최대값과 최소값을 조사하였다.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불안, 스트레스, 교사 효능감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 사후검정(Scheffe test)으로 분석하였다.
- 4) 우울, 불안, 스트레스, 교사 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 5) 교사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일반적 특성 항목 중 교사 효능감에서 차이를 보이는 성별, 학력, 직무 만족도, 경력과 주관적 건강상태를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의 경우 분산팽창지수는 1.060~1.318로 기준치인 VIF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종속변수의 등분산성은 Levene 등분산검정으로 확인하였으며, Cook's distance가 1보다 크게 나타나는 이상값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차분석 결과는 Durbin-Waston 2.011로 나타나 오차항 간에 독립성을 확인한 결과 회귀분석의 가정이 충족되었다.

2.6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편의 표집으로 조사한 중등 학교의 교사에게 설문지 링크를 안내한 후 온라인으로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온라인 설문 첫 페이지에 명시한 연구 설명

문에서 연구 도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연구 참여를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본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안내하였다. 자발적 참여 의사가 있는 경우 온라인 동의서에 동의함에 체크를 한 후 온라인 URL을 클릭한 후 설문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설문 참여 대상자에게는 설문을 마친 후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으며, 연구 과정에서 윤리적 고려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나이, 성별, 교직 기간, 보직 여부, 교육수준, 결혼 여부, 직무 만족도, 경제 수준, 주관적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평균 나이는 47.00 ± 7.94 세로 50~59세가 43.9%(54명)로 가장 많았고, 79.7%(98명)가 여성이었다. 평균 교직 경력은 18.81 ± 9.70 년으로 21년 이상~30년 근무한 자가 32.5%(40명)이었고, 평교사가 66.7%(82명)로 많았고, 53.7%(66명)가 학사, 46.3%(57명)가 석사 이상이었다. 결혼 여부는 기혼이 84.6%(104명)로 많았으며, 직무 만족도는 만족이 61.0%(75명)이며, 경제 수준은 보통이 80.5%(99명)로 가장 많았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건강이 14.6%(18명), 건강이 52.0%(64명)로 나타났다.

3.2 우울, 불안, 스트레스, 교사 효능감 점수

대상자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 및 교사 효능감 점수는 Table 2와 같다. 우울, 불안, 스트레스의 평균점수는 최소 0점에서 최대 42점 사이에서 각각 우울 6.55 ± 6.61 점, 불안 4.46 ± 6.40 점, 스트레스 9.09 ± 7.05 점이었다. 교사 효능감의 평균점수는 최소 1점에서 최대 5점 사이에서 3.49 ± 0.50 점이었다. 교사 효능감의 하위영역으로 자신감 3.44 ± 0.70 점, 자기조절 3.79 ± 0.55 점, 도전감 2.99 ± 0.68 점이었다.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불안, 스트레스 및 교사 효능감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불안, 스트레스 및 교사 효능감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먼저 우울의 경우 직무 만족도에서 만족은 4.93 ± 5.52 점, 보통 8.40 ± 7.05 점, 불만족 19.33 ± 5.03 점으로 직무에 불만족한 경우 유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2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Age(years)	20-29	2 (1.6)	47.00±7.94
	30-39	23 (18.7)	
	40-49	40 (32.5)	
	50-59	54 (43.9)	
	60≤	4 (3.3)	
Gender	Male	25 (20.3)	
	Female	98 (79.7)	
Teaching period (years)	≥5	15 (12.2)	18.81±9.70
	6-10	16 (13.0)	
	11-20	39 (31.7)	
	21-30	40 (32.5)	
	31≤	13 (10.6)	
Position	Director	41 (33.3)	
	Teaching staff	82 (66.7)	
Education	Bachelor	66 (53.7)	
	Master's or higher	57 (46.3)	
Marriage	Married	104 (84.6)	
	Single	19 (15.4)	
Satisfaction with duty	Good	75 (61.0)	
	Moderate	45 (36.6)	
	Bad	3 (2.4)	
Economic level	High	22 (17.9)	
	Middle	99 (80.5)	
	Low	2 (1.6)	
Subjective health state	Very good	18 (14.6)	
	Good	64 (52.0)	
	Moderate	37 (30.1)	
	Bad	4 (3.3)	
	Very bad	0 (0.0)	

Table 2. Degree of Depression, Anxiety, Stress and Teacher Efficacy of Participants

(N=123)

Variables	Mean±SD	Min	Max	Range
Depression	6.55±6.61	0	28	0-42
Anxiety	4.46±6.40	0	36	0-42
Stress	9.09±7.05	0	32	0-42
Teacher efficacy	3.49±0.50	2.25	5	1-5
Confidence	3.44±0.70	1.14	5	1-5
Sense of self-regulation	3.79±0.55	1.45	5	1-5
Sense of challenge	2.99±0.68	1.17	5	1-5

하게 증가하였고($F=11.20, p<.001$),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매우 건강 3.00 ± 6.58 점, 건강 5.75 ± 6.32 점, 보통 8.70 ± 6.00 점, 건강하지 않음 15.50 ± 10.87 점으로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빠질수록 우울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6.58, p<.001$). 나이($F=1.48, p=.211$), 성별($t=2.43, p=.121$), 교직 경력($F=1.03, p=.396$), 보직

여부($t=0.62, p=.432$), 학력($t=2.32, p=.130$), 결혼 여부($t=0.88, p=.378$), 경제 수준($F=0.94, p=.393$)에 따른 우울 점수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불안의 경우 직무 만족도에서 만족의 경우 3.33 ± 6.03 점, 보통 5.69 ± 5.35 점, 불만족 14.00 ± 17.43 점으로 직무에 불만족한 경우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Differences of Depression, Anxiety, Stress and Teacher Effica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23)

Characteristics	Categories	Depression		Anxiety		Stress		Teacher efficacy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Age	20-29	0.00	1.48 (.211)	2.00±2.82	0.74 (.567)	11.00±15.55	2.10 (.085)	3.56±0.44	2.07 (.089)
	30-39	8.26±6.36		4.70±4.49		11.39±6.16		3.30±0.47	
	40-49	7.45±7.23		5.65±7.52		10.20±7.48		3.42±0.47	
	50-59	5.56±6.24		3.74±6.39		7.59±6.59		3.58±0.51	
	60≤	4.50±5.26		2.00±4.00		4.00±5.65		3.86±0.47	
Gender	Male	4.72±5.77	2.43 (.121)	3.28±4.99	1.05 (.306)	6.56±6.17	4.14 (.044)	3.71±0.57	6.35 (.013)
	Female	7.02±6.76		4.76±6.70		9.73±7.14		3.43±0.46	
Teaching period	≥5	7.33±6.78	1.03 (.396)	4.00±3.02	1.91 (.113)	11.33±7.35	2.01 (.097)	3.26±0.33	1.96 (.106)
	6-10	5.13±4.84		1.75±2.29		7.75±4.55		3.53±0.53	
	11-20	7.59±7.11		5.79±6.30		10.10±7.04		3.39±0.50	
	21-30	6.70±7.14		5.25±8.44		9.20±7.76		3.60±0.50	
	31≤	3.85±4.58		1.85±4.03		4.77±5.57		3.64±0.53	
Position	Director	7.22±6.51	0.62 (.432)	4.68±7.38	0.07 (.782)	9.71±6.73	0.47 (.494)	3.57±0.47	1.53 (.219)
	Teaching staff	6.22±6.68		4.34±5.89		8.78±7.22		3.45±0.51	
Education	Bachelor	7.39±7.00	2.32 (.130)	4.67±5.87	0.15 (.695)	10.06±6.82	2.74 (.100)	3.36±0.47	9.51 (.003)
	Master's or higher	5.58±6.04		4.21±7.00		7.96±7.20		3.63±0.49	
Marriage	Married	6.33±6.62	0.88 (.378)	4.71±6.84	-1.03 (.301)	9.12±7.18	-0.09 (.924)	3.50±0.50	-0.80 (.425)
	Single	7.79±6.59		3.05±2.61		8.95±6.47		3.40±0.45	
Satisfaction with duty	Good ^a	4.93±5.52	11.20 (<.001) (a,b<c)	3.33±6.03	5.74 (.004) (a,b<c)	7.63±6.66	6.36 (.002) (a<c)	3.67±0.45	17.33 (<.001) (c<a)
	Moderate ^b	8.40±7.05		5.69±5.35		10.89±6.61		3.24±0.43	
	Bad ^c	19.33±5.03		14.00±17.43		18.67±11.71		2.73±0.26	
Economic level	High	4.82±6.31	0.94 (.393)	5.45±9.03	0.36 (.698)	7.27±7.31	0.93 (.396)	3.82±0.56	6.51 (.002)
	Middle	6.95±6.66		4.26±5.74		9.52±6.94		3.41±0.46	
	Low	6.00±8.48		3.00±4.24		8.00±11.31		3.52±0.14	
Subjective health state	Very good ^a	3.00±6.58	6.58 (<.001) (a,b<d)	3.00±6.33	2.10 (.104)	5.67±7.70	3.70 (.014) (a<d)	3.85±0.63	7.65 (<.001) (c<a)
	Good ^b	5.75±6.32		3.97±7.03		8.53±6.95		3.54±0.42	
	Moderate ^c	8.70±6.00		5.30±4.62		11.08±5.60		3.23±0.38	
	Bad ^d	15.50±10.87		11.00±7.74		15.00±10.89		3.45±0.79	

a,b,c : scheffe

(F=5.74, p=.004). 나이(F=0.74, p=.567), 성별(t=1.05, p=.306), 교직 경력 (F=1.91, p=.113), 보직 여부 (t=0.07, p=.782), 학력(t=0.15, p=.695), 결혼 여부 (t=-1.03, p=.301), 경제 수준(F=0.36, p=.698), 주관적 건강상태(F=2.10, p=.104)에 따른 불안 점수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는 직무 만족도에서 만족의 경우 7.63±6.66 점, 보통 10.89±6.61점, 불만족 18.67±11.71점으로 직무에 불만족한 경우 유의하게 증가하였고(F=6.36, p=.002),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매우 건강 5.67±7.70점, 건강 8.53±6.95점, 보통 11.08±5.60점, 건강하지 않음

15.00±10.89점으로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빠질수록 스트레스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3.70, p=.014). 성별에서 남성 6.56±6.17점, 여성 9.73±7.14점으로 여성에서 스트레스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4.14, p=.044). 나이(F=2.10, p=.085), 교직 경력 (F=2.01, p=.097), 보직 여부(t=0.47, p=.494), 학력 (t=2.74, p=.100), 결혼 여부(t=-0.09, p=.924), 경제 수준(F=0.93, p=.396)에 따른 스트레스 점수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교사 효능감은 남성의 경우 3.71±0.58점, 여성 3.43±0.46점으로 남성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t=6.35, p=.013$), 학력에서 학사 3.36 ± 0.47 점, 석사 3.63 ± 0.49 점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9.51, p=.003$). 직무 만족도에서 만족의 경우 3.67 ± 0.45 점, 보통 3.24 ± 0.43 점, 불만족 2.73 ± 0.26 점으로 직무에 만족하는 경우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F=17.33, p<.001$), 경제 수준에서 상의 경우 3.82 ± 0.56 점, 중 3.41 ± 0.46 점, 하 3.52 ± 0.14 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6.51, p=.002$).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매우 건강 3.85 ± 0.63 점, 건강 3.54 ± 0.42 점, 보통 3.23 ± 0.38 점, 건강하지 않음 3.45 ± 0.79 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7.65, p<.001$). 나이($F=2.07, p=.089$), 교직 경력($F=1.96, p=.106$), 보직 여부($t=-1.23, p=.219$), 결혼 여부($t=-0.80, p=.425$)에 따른 교사 효능감 점수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3.4 우울, 불안, 스트레스 및 교사 효능감의 상관관계

우울은 불안($r=.72, p<.001$), 스트레스($r=.78,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교사효능감($r=-.38,$

$p<.001$)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우울과 교사 효능감 하위요인의 경우 자신감($r=-.48, p<.001$), 자기조절감($r=-.21, p=.017$), 도전감($r=-.22, p=.014$)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불안은 우울($r=.72, p<.001$), 스트레스($r=.77,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교사효능감($r=-.28, p=.002$)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불안과 교사효능감 하위요인의 경우 자신감($r=-.38, p<.001$)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스트레스는 우울($r=.78, p<.001$), 불안($r=.77,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교사효능감($r=-.36, p<.001$)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스트레스와 교사효능감 하위요인의 경우 자신감($r=-.49, p<.001$), 자기조절감($r=-.23, p=.010$)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우울, 불안, 스트레스 및 교사 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교사 효능감 사이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어 우울, 불안,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교사 효능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Table 4. Correlations among Depression, Anxiety, Stress and Teacher Efficacy of Participants (N=23)

Variable		Depression r(p)	Anxiety r(p)	Stress r(p)	Teacher efficacy			
					Confidence r(p)	Sense of self-regulation r(p)	Sense of challenge r(p)	Total r(p)
Depression		1						
Anxiety		.72 ($<.001$)	1					
Stress		.78 ($<.001$)	.77 ($<.001$)	1				
Teacher efficacy	Confidence	-.48 ($<.001$)	-.38 ($<.001$)	-.49 ($<.001$)	1			
	Sense of self-regulation	-.21 (.017)	-.17 (.058)	-.23 (.010)	.38 ($<.001$)	1		
	Sense of challenge	-.22 (.014)	-.11 (.245)	-.14 (.132)	.48 ($<.001$)	.48 ($<.001$)	1	
	Total	-.38 ($<.001$)	-.28 (.002)	-.36 ($<.001$)	.77 ($<.001$)	.83 ($<.001$)	.78 ($<.001$)	1

Table 5. Factors Influencing on Teacher Efficacy (N=123)

Variable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R ²	Adj. R ²	F	p
	B	SE	(β)						
Satisfaction with duty	0.25	0.08	0.27	3.18	.002	.38	.35	11.80	<.001
Economic level	0.22	0.09	0.18	2.33	.022				
Education	0.18	0.08	0.18	2.33	.022				
Subjective health state	0.11	0.06	0.16	2.01	.047				
Stress	-0.01	0.01	-0.16	-2.03	.044				
Gender	0.19	0.09	0.16	2.05	.042				

교사 효능감($r=-.38, p<.001$), 불안과 교사 효능감($r=-.28, p=.002$), 스트레스와 교사 효능감($r=-.36, p<.001$)이었다(Table 4).

3.5 우울, 불안, 스트레스가 교사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교사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울, 불안, 스트레스, 일반적 특성 항목 중 교사 효능감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성별, 학력, 직무 만족도, 경제 수준과 주관적 건강상태를 포함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직무 만족도($\beta=0.27, p=.002$), 경제 수준($\beta=0.18, p=.022$), 학력($\beta=0.18, p=.022$), 주관적 건강상태($\beta=0.16, p=.047$), 스트레스($\beta=-0.16, p=.044$), 성별($\beta=0.16, p=.042$)이 교사 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으며, 설명력은 35%이었다($F=11.80, p<.001$). 우울($\beta=-0.09, p=.468$)과 불안($\beta=-0.12, p=.320$)은 교사 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킴으로써 교사 효능감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Table 5).

4. 논의

본 연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사회적 재난 상황 시기에 특별재난지역의 교사를 대상으로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교사 효능감의 수준을 파악하고 교사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여 사회적 재난 상황에 시기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략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기의 교사의 우울은 평균 6.55 ± 6.61 점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성인 1794명을 대상으로 한 Henry와 Crawford [22]의 연구에서 측정된 우울 5.66점보다는 높으나, 대학생 717명을 대상으로 한 Lovibond와 Lovibond [7]의 연구에서 측정된 우울 7.19점보다는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불안은 평균 4.46 ± 6.40 점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Henry와 Crawford [22]연구의 불안 3.76점보다는 높으나, Lovibond와 Lovibond [7]연구의 불안 5.23점이나 간호대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한 Ko [23]의 연구에서 측정된 불안 4.72점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또한 평균 9.09 ± 7.05 점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점수는 Henry와 Crawford [22]연구의 스트레스 9.46점, Lovibond와 Lovibond [7]연구의 스트레스 10.54점 및 Ko [23]연구의 스트레스 15.48점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사 효능감은 평균 3.49 ± 0.50 점으로 보육교사 216명을 대상으로 측정된 교사 효능감 3.39점 [17]이나 초등학교 교사 310명을 대상으로 측정된 교사 효능감 3.01점[24]보다 조금 높았다. 교사 효능감의 하위 항목 각각의 평균도 본 연구결과에서 자신감 3.44 ± 0.70 점, 자기조절감 3.79 ± 0.55 점, 도전감 2.99 ± 0.68 점으로 Jang [17]연구의 자신감 3.44점, 자기조절감 3.57점, 도전감 3.02점이나, 중등교사 300명을 대상으로 측정된 Ku와 Kim [13]연구의 자신감 3.64점, 자기조절감 2.87점, 도전감 2.85점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사 효능감과 우울, 불안,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우울, 불안, 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 교사 효능감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r=-.28\sim-.38, p<.05$), 교사 효능감 하위요인 중 자신감만 우울, 불안, 스트레스 모든 변수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38\sim-.49, p<.05$).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본 연구결과와 같이 스트레스와 교사 효능감 간[24], 스트레스, 교사 효능감, 심리적 소진 간[13]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어, 우울, 불안,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자신감이 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교사 효능감마저 저하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사 효능감의 예측변수를 조사한 결과, 직무 만족도, 경제상태,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성별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이 35%이었다. 우울과 불안은 교사 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본 연구결과와 같이 교사 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12, 24, 25] 과도한 스트레스가 교사 효능감 저하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우울과 불만이 교사 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은 직접적인 관련 선행연구 결과는 없으나 본 연구결과에서 불안, 우울, 교사 효능감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점과 불안, 우울 등의 정서 상태에 대한 조절 능력이 교사 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26], 정서 조절과 관련되는 마음 챙김 훈련이 중등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소진뿐만 아니라 교사 효능감 증진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27], 직무 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서 교사 효능감이 매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13]를 고려할 때 우울과 불만이 교사 효능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수 없어 이들 변수 간의 직간접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교사의 일반적 특성으로 직무 만족도[12, 25], 교육수준과 건강상태[28], 성별[26]이 본 연구결과와 같

이 선행연구결과에서도 교사 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교사 효능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스트레스 관리뿐만 아니라 직무 만족도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이 동시에 요구되며, 교육 수준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은 집단과 여성을 교사 효능감 취약집단으로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와 관리가 요구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기에 교사의 교사 효능감 영향요인을 조사한 결과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직무 만족도, 경제상태,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및 성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의 교사 효능감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스트레스 및 직무 만족도 관리에 초점을 둔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거나 여성 교사인 경우 우선적이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가 편의 추출된 일개 지역 교사만을 대상으로 단면연구로 시행되어 본 연구결과를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일반화하여 해석하거나 변수 간 인과관계를 단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우울과 불안이 교사 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선행연구의 결과에서는 우울[10], 불안[11], 스트레스[12]가 효능감과 관련이 있는 변수라는 점과 교사 효능감과 정서 상태가 인과관계가 있다[13, 26]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는 있는 다음의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첫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시기에 교사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 및 교사 효능감에 대한 보다 다양한 대상자와 시점을 포함하는 연구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주요 변수의 변화 추이와 인과관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스트레스 관리와 직무 만족도 증진에 초점을 둔 교사 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에 관한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1] S. E. Park. (2020). Epidemiology, Virology, and Clinical

Features of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SARS-CoV-2; Coronavirus Disease-19). *Pediatric Infection Vaccine*, 27(1), 1-10. DOI:10.3345/cep.2020.00493

[2] Prevention, K. C. f. D. C. a. (2020a). *Confirmation of Confirmed Patients with New Coronavirus Inflow from Overseas in the Quarantine Stage. Infectious Disease Crisis Warning is Raised to the 'Caution' Level and Responded updates on COVID-19 in Republic of Korea (as of 20 January)*. Retrieved from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52435&contSeq=352435&board_id=&gubun=ALL.

[3] Prevention, K. C. f. D. C. a. (2020b). *COVID-19 Occurrence Status in Korea(Regular briefing 29 July) Updates on COVID-19 in Republic of Korea (as of 29 July)*. Retrieved from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58768&contSeq=358768&board_id=&gubun=ALL.

[4] Y. J. Shin. (2020). "Toward one Health & Welfare": Health and Welfare in the Covid-19 Pandemic.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40(1), 5-10. DOI : 10.15709/hswr.2020.40.1.5

[5] E. H. Lee (2020). COVID- 19 Generation, is Mental Health Good!. *Issue& Analysis*, 414, 1-25.

[6] J. H. Oh. (2020). The Future of COVID- 19, from the Time of Education to the Time of Learning. *Issue & Analysis*, 421, 1-25.

[7] P. F. Lovibond & S. H. Lovibond. (1995). The Structure of Negative Emotional States: Comparison of the Depression Anxiety Stress Scales (DASS) with the Beck Depression and Anxiety Inventorie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3(3), 335-343.

[8] H. N. Yoo. (2018). *The Effects of Acute Stress of Crime Victims on Depression and Anxiety: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Dysregulation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Dongduk Womens University, Seoul.

[9] Y. S. Kim, E. J. Kim, S. W. Lim, D. W. Shin, K. S. Oh & Y. C. Shin. (2015). Association of Self-reported Job Stress with Depression and Anxiety. *Anxiety and Mood*, 11(1), 38-46.

[10] H. Y. Hong. (1995). *The Relationships of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1] A. Bandur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

[12] D. C. Shin & J. H. Kwon. (2018). Cause of Job Stress Determining Job Satisfaction of Head Supervisor Working in Middle School: Mediation Effect of Empowerment and Teacher-efficacy.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22),

- 537-553.
- [13] B. Y. Khu & Y. M. Kim. (2014). A Relationship among Secondary School Teachers' Stressors, Psychological Burnout, and Teacher Effica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7), 275-306.
- [14] E. S. Cha, M. Y. Park & G. A. Kim. (2008). A Comparison Analysis of Somatotype, Physical Activity, Mental Health, Healthy Behavior between Normal Weight and Overweight College Studen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8(4), 245-255.
- [15] P. Ashton. (1984). Teacher's Sense of Efficacy: A Self- or Norm-referenced Construct?. *Florida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26(1), 29-41.
- [16] H. M. Jeon. (2010). *Impact of Perceived Teaching Professionalism on Teacher Efficacy and Commitment to Teaching in Elementary Teac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Korea University, Seoul.
- [17] Y. J. Jang. (2014). *The Effects of Teachers' Emotional Quotient and Ego-resilience on the Teachers' 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Suwon University, Hwaseong.
- [18] R. M. Allinder. (1995).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Efficacy and Curriculum-based Measurement and Student Achievement. *Remedial and Special Education*, 16(4), 247-254.
- [19] M. H. Dembo & S. Gibson. (1985). Teacher's Sense of Efficacy: An Important Factor in School Improvement.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86(2), 173-184.
- [20] S. Y. Kim. (2020). A Convergence Study of Stress caused by the Epidemic of COVID-19, Quality of Life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1(6), 423-431. DOI : 10.15207/JKCS.2020.11.6.423
- [21] A. Y. Kim. (1997). A Study on the Academic Failure - Tolerance and its Correlate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1(2), 1-19.
- [22] J. D. Henry & J. R. Crawford. (2005). The Short-form Version of the Depression Anxiety Stress Scales (DASS-21): Construct Validity and Normative Data in a Large Non-clinical Sample.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4(2), 227-239. DOI : 10.1348/014466505x29657
- [23] Y. S. Ko. (2018). *Effects of Emotion Management Program for the Students Attending College of Nurs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24] J. Y. Min & Y. M. Kim.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Elementary School Teachers' Work Stress and Teacher Efficacy: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elf-compass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0), 187-205.
- [25] J. M. Park & J. H. Kwon. (2016). The Effects of School Organizational Culture on Teacher's Job Satisfaction: The Mediated Effect of Job Stress and Teacher Efficac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7(5), 307-329. DOI:10.15703/kjc.17.5.201610.307
- [26] J. Y. Lim & S. L. Do. (2014). The Effects of Teachers' Emotional Labor on Job Stress, Burnout and Teacher-Efficacy.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31(1), 197-220. DOI:10.24211/tjkte.2014.31.1.197
- [27] T. K. Kim & J. S. Moon. (2018). The Effect of Mindfulness Training on the Job Stress, Burnout, Teacher Efficacy of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Teacher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4), 363-369. DOI:10.14400/JDC.2018.16.4.363
- [28] J. E. Kang. (2011). *A Study on Influential Factors for the Teacher Efficacy of Daycare Teac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ncheon.

김 은 휘(Eun-Hwi Kim)

[장학원]



- 2003년 2월 : University of Cincinnati(Master of Science in Nursing)
- 2015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경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간호교육, 노인간호
- E-Mail : pepe0508@hanmail.net

하 영 선(Young-Sun Ha)

[장학원]



- 2014년 8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8년 3월 ~ 현재 : 경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건강증진, 보건교육, 동기면담, 금연, 청소년
- E-Mail : ysha@kiu.kr

박 용 경(Yong-Kyung Park)

[장학원]



- 2015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경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중환자간호, QI, 환자안전
- E-Mail : ykpark@kiu.kr